**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6,
사무엘 상 8**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 상하를 가르친 Dr. Robert Chisholm입니다. 이것은 6회기, 사무엘상 8장,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입니다.

다음 수업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다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권위를 거부하도록 허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프게도 이 장에서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그분의 권위를 거부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특별한 경우에 그들의 결정과 반역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큰 승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는 8장에 있고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구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나는 어느 여름에 교회에서 성인반에서 구약의 악명 높은 실망(Infamous Letdowns in the Old Testament)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 직후 그들은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골리앗에게 큰 승리를 거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두려움에 떨며 사울에게서 도망쳐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리고 내가 얻은 유일한 것은 당신이 골리앗에게서 가져간 것뿐입니다. 그는 '오, 그런 건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인간의 무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물리친 가장 큰 적이 사용했던 무기를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은 구약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때때로 주님께 대한 헌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는 먼저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그의 아들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비야 또는 아비야라 그들이 남쪽 브엘세바에서 섬기니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엘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흥미롭지 않나요? 그들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은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엘리의 경우를 기억하십시오. 엘리는 아들의 잘못으로 인해 유익을 얻었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라마는 앞 장에서 언급한 그의 고향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를 이끌 왕을 임명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정의와 이 경우에는 불의에 대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늙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원하며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사실, 신명기 17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처럼 왕을 구할 날을 예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말하자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해했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말하는 것을 다 들으라 그들이 거절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인 나를 거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보라는 말의 의미가 그가 모든 말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사무엘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그건 관용어인 것 같아. 모든 수단을 다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십시오.

그 이유는 12장 1절과 같이 이어지는 다른 구절에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네 말을 다 듣고 네게 왕을 주었노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모두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십시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날부터 행한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오늘까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행하는도다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엄숙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이 무엇을 할지 알게 하라. 그들에게 그 왕을 주되 그가 어떤 모습일지 그들에게 경고하십시오. 8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당신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들이 정말로 나를 버렸고 너희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모순인가요? 때때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X보다 Y를 더 의미할 때 X가 아닌 Y를 사용하고, Y보다 X를 더 의미할 때 X를 Y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나를 버렸지 너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이 당신보다 나를 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는 그의 대표자인 사무엘이 버림받았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대표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들이 거부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일에 넘겨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사무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듣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이 이같이 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take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제 내 생각에는 영어 번역에서 히브리어보다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에서는 take가 사용된 경우가 최소한 4번 있습니다. 또한 your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대명사 your . 그는 당신에게 속한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신에게서 빼앗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 의 왕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군사 기계를 갖춘 대규모 왕실 관료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군인과 장군,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먹여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대한 왕실 관료제를 만들고 이를 부채질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왕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을 몰고 섬기게 할 것이며, 그들은 자기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병거와 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왕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 문화에서 왕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전차 부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차 부대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군대를 가지려면 전차가 몇 대 있어야 합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병거가 있었고, 헷 사람에게는 병거가 있었고, 시스라 휘하의 가나안 사람에게는 병거가 있었습니다.

마차가 좀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이는 즉시 이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는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할 것이며, 땅을 갈고 수확을 거두게 할 사람도 있고, 전쟁 무기와 병거 장비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너희 딸들을 데리고 향료 만드는 일과 요리하는 일과 빵 굽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분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일을 하고 수확물을 가져올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의 여인들을 위한 향수를 만들기 위해 요리사, 빵 굽는 사람, 향료 제조인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중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수종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너희 곡식과 너희 포도 수확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그의 관리들과 수종들에게 줄 것이다. 거의 그가 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소산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는 첫 열매를 얻고 십일조도 받습니다. 이 왕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설정하려고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소와 나귀를 자기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그는 너희 양 떼의 십일조를 취할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이르면 너희가 너희가 택한 왕에게 부르짖을 것이나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그들에게도 왕을 세워 주소서. 그 왕이 어떤 모습일지 그들에게 경고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 당신은 왕을 구한 날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제를 위해 소리칠 것이고 나는 너무 늦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요청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들에게 단지 알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마음을 바꾸어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학자들은 주변 국가의 왕권을 연구했으며 이것이 이러한 왕권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Kings는 Samuel이 여기서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문화에 살면서 이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정의에 대한 우려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아니요, 그들은 우리가 우리 위에 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울 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안보, 국가 안보, 군사력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는 현재 트랜스요르단에 특별한 위협이 끝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암몬 자손의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하쉬(Nahash)인데, 뱀을 뜻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들에게서 따온 이름일 수도 있고, 동음이의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를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울은 실제로 왕으로 선택되면 나가서 11장에서 이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 안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말은, 7장이에요. 우리는 이전 수업에서 7장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여 그 대적을 향하여 우렛소리를 발하셨다. 병거, 말, 보병, 그 어떤 것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적군을 치실 때 천둥을 치실 때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역사에서 몇 번이고, 심지어 최근까지도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위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악명 높은 실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비군을 갖춘 왕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이 모두를 모아 싸우게 하는 시민군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기구를 가져와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군대를 보유한 왕을 원합니다. 그에게는 전문 군인이 있고 말과 전차가 있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민군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원합니다. 그 왕은 다른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아들딸들을 데리고 자기의 군사로 삼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 앞에 그 말을 아뢰었습니다 .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신지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순종하는 자로 묘사되어 온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내 말은, 여기에서도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라 나는 이 시점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모아서 우리가 왕을 선택하는 일종의 과정을 세웠다는 내용을 읽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과정은 조금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 가세요 . 이제 그들은 그 과정을 파악하고 우리가 이 왕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항의 방식인지, 사무엘이 여기서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묵묵히 항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치 그가 모두들 모퉁이로 돌아가 너희들은 집에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모세에게서 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새로운 모세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무엘은 예레미야서에서 모세와 함께 위대한 중보자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여기 있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점에 있어서 모세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여기서 중보기도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멀리 보냅니다. 그는 즉시 나가서 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오셨을 때, 그가 이상하게도 나를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뭔가를 시도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나를 내버려 둬. 나는 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

모세는 그것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님,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 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어 이 일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주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는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알아보기 위해 모세를 시험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나중에 시적인 묵상은 모세가 틈새에 서서 주님이 그의 백성을 멸하려고 돌진하시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중재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이 신성한 예지와 주권,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 및 선지자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 이외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가 이런 종류의 관계를 선택했다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특히 애도 시편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사무엘의 묵묵한 중보기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다음 장에서 주님께서 이 문제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요청한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 사울을 구했고, 구한 사람인 사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준에 따라 왕을 선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죠, 그렇죠? 아니,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 , 키가 크고 잘 생겼고 왕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면적인 기준에 따라, 열방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왕을 세워 교훈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택하시고, 사울을 거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는 여기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9장에서 그가 등장하여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에게 왕을 주겠지만 그는 나기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뜻 의 멜렉 이 아닌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

그는 nagid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nagid를 부섭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통과할 때쯤이면 주님께서는 이 왕이 여전히 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왕을 주겠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모든 나라처럼 왕을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너희 모퉁이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나는 내 백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기드를 줄 것이다. 그들은 왕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왕을 주겠다. 그러나 그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왕권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상 8~12장의 일부 학자들은 서로 병합된 다양한 출처를 봅니다.

한쪽은 친왕권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왕권 세력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일종의 경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두 가지 견해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인데, 어떤 내용은 친왕론이고, 어떤 내용은 반왕권입니다.

나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왕권을 어떻게 봅니까? 신명기 17장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이 특별한 날을 예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곳은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거할 때에 네가 이르기를 우리 주위의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우자 하느니라.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그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 너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네 위에 왕으로 세우라.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르고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원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택해야 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라.

그러므로 왕은 우선 언약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외국인일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수의 말을 획득해서는 안 되며, 더 많은 말을 얻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그들이 왜 이집트로 내려가서 말을 얻으려고 하였겠습니까? 글쎄요, 말은 마차를 끌죠. 그들은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도 병거 부대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모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깨뜨립니다. 그는 이 정책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에 충실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것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모든 나라들처럼 왕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을 구하자 주님께서는 내가 택한 사람을 너희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왕은 전차부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나라와 같은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왕을 주겠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17절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아, 왕은 모든 나라와 같구나. 내 말은, 몇 개야? 내 말은, 당신이 David와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내가 많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 몇 개야? 우리가 David에게서 보는 것은 점점 더 커지는 패턴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극단적으로 행했던 국가의 선례 처럼 왕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솔로몬은 확실히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는 방식은 우리가 동맹을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과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왕의 딸을 데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처남과 싸우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것은 조약 상황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자신들만의 종교 체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신이 있습니다. 나중에 Ahab과 Jezebel의 경우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타국인 아내들로 인해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라들 가운데 나라들과 같은 왕들이 행할 일이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은과 금을 주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유하고, 강력하고, 유명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은과 금을 조약이나 동맹 등을 형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공으로 바칠 수 있는 은과 금이 있으면 더 강력한 왕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에서 너희가 열방과 같은 왕을 원하는 날이 오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왕이 내가 선택하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너희는 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왕이 왕이 되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이 그렇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은 내가 실제로는 모든 나라와 같이 너희에게 왕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서 받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기를 위하여 두루마리에 기록할지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며 자기를 그 형제들과 법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쳐라.

긴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는 토라의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합당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해야 하며 그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왕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와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의 왕국을 오랫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갖기를 기대하신 왕의 종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그는 그들이 모든 나라처럼 왕을 요구할 때 화를 냈고 그는 온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명기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입니다. 아니요, 그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맥락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 왕을 두려워하고, 상비군을 원하고, 국가의 안전을 원하며, 그들의 적들을 치려고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그래서 그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왕을 갖기 위해 나를 거부했어요.

그에게 줘, 사무엘. 사무엘은 아니오로 결정합니다. 내 생각엔 그가 우리가 그 일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9장에서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신명기에 따라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왕을 주겠다.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고 부르겠지만, 나에게 그는 나기드입니다.

그는 내 권위 아래 있고 이 왕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왕의 본성과 내 백성의 본성을 고려할 때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승인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사무엘에 이르기 전에 왕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사사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즉, 왕권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백성이 그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드온은 당신에게 이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이미 Gideon이 좋게 들렸다고 말했지만 Gideon은 약간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는데,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의 일부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모았습니다. 그는 첩을 통해 아들 중 한 명을 지명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저는 기디온이 왕권의 특권을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완전한 책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보고 있는 것, 기드온이 아니,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람들의 태도가 사무엘상 8장과 더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기디온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사기의 에필로그에서 에필로그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진술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글쎄요, 어느 쪽이에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왕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만 있었다면 그들은 옳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글쎄요, 사사기의 에필로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기드온과 맞섰을 때 염두에 두었던 것과 다른 유형의 왕을 생각하고 있거나 여기 사무엘상 8장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유형의 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왕이 아닌 신명기 17장에 묘사된 그런 종류의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라, 율법을 기록하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글을 쓰면 마음 속에 맴돌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메모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강의할 때 메모를 하는 것에는 자료가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가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생에 율법을 읽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왕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것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 법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순종의 모델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의 모범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왕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사사기는 이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에서 전개되면서 우리도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을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들은 누군가, 그들이 볼 수 있는 왕을 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amuel이 조정한 약간의 지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좋아, 내가 그들에게 지도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판사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멜렉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는 그를 Nagid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밑에서 부통령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왕이 신명기의 규례와 규정에 복종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 들어가면 사무엘이 왕권에 관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장 25절에서 왕권에 관한 규례를 백성들에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무엘이 8장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는 왕권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주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왕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 왕이 잘 행할 것이며 너희도 잘 행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끝날 무렵에는 주님께서 초기 반응을 어느 정도 철회하셨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예. 그분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기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 작은 부분이 끝날 무렵,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의 원리를 따르고 백성을 주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는 왕을 자신의 권위 아래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 점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구절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명백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구절은 왕을 옹호하는 것 같고, 어떤 구절은 왕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고 말한, 주님의 권위 아래 왕권이라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줄 왕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왕을 다르게 봅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는 다음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구했는데, 히브리어로 '샤알'은 '요청하다'라는 뜻이고, 그들은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인 샤울을 얻습니다.

그는 요청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구한 것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그의 권위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보고 사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겉모습만 볼 것이며, 눈으로 보는 겉모습이 얼마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실패하면 그는 다윗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때때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수업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가르친 Dr. Robert Chisholm입니다. 이것은 6회기, 사무엘상 8장,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입니다.